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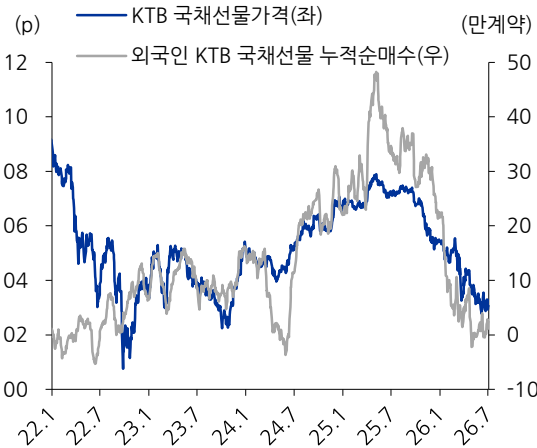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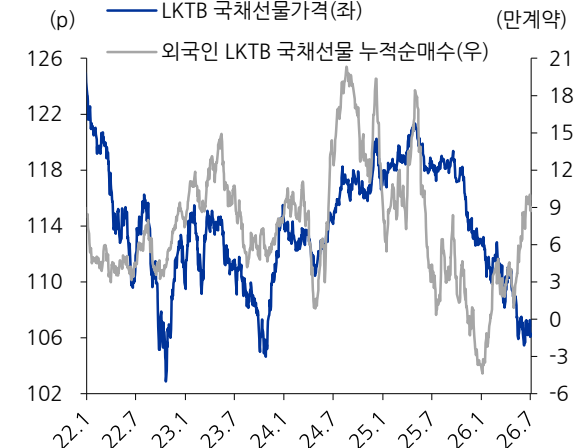
(단위: %,bp, 톱)

	7/3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748%	0.1	2.6	79.5
	한국 국고채 10년물	4.197%	1.4	8.0	81.2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44.9	43.6	39.5	43.2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3.06	3.0	-23.0	-238.0
	10년 국채 선물(LKTB)	106.25	-5.0	-73.0	-667.0
	미국채 2년물	4.121%	-5.8	-0.3	64.9
	미국채 10년물	4.486%	0.6	9.2	31.8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36.6	30.1	27.0	69.6
	독일국채 10년물	2.935%	3.3	8.4	8.0
호주국채 10년물	4.795%	-2.6	7.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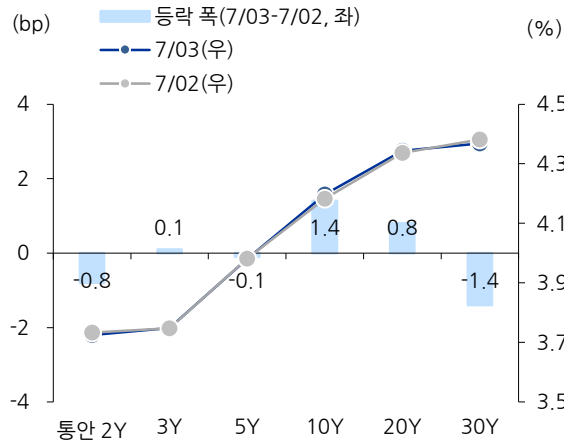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약보합 마감. 개장 초 강세 출발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 반납.
- 간밤 미국 고용지표 예상치 하회와 미국 반도체 주식 조정 등에 국내 금리 하락 출발. 이후 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하면서 금리 하락폭 반납하기 시작.
- 환율 부담감 지속됐지만 장 막판 외환당국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회되면서 환율이 종가 기준 30.2원 급락. 재경부 역시 1,500원 중반 환율은 펀더멘털과 괴리가 있고, NDF 시장 관리를 언급했지만 금리는 장기물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별다른 움직임 없었음.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독립기념일로 휴장.

자료 출처: 연함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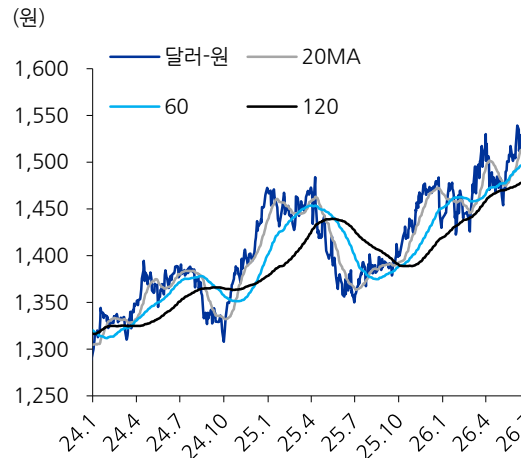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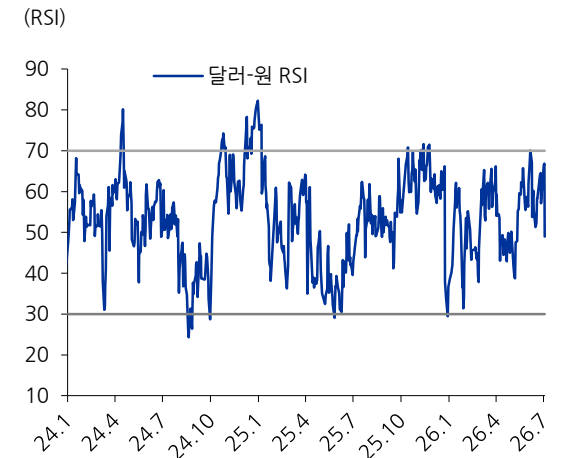
(단위: %, \$)

	7/3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525.60	-1.9%	-0.4%	6.0%
	달러지수	100.87	0.0%	-0.5%	2.6%
	달러/유로	1.144	0.0%	0.5%	-2.6%
	위안/달러(역외)	6.79	0.0%	-0.3%	-2.8%
	엔/달러	161.38	0.2%	-0.2%	3.0%
	달러/파운드	1.335	0.0%	1.1%	-0.8%
상품	해알/달러	5.19	-0.7%	0.3%	-6.0%
	WTI 근월물(\$)	68.69	0.2%	-4.5%	19.6%
	금 현물(\$)	4,175.30	1.3%	2.1%	-3.3%
	비트코인(\$)	61,655	2.5%	4.2%	-29.8%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미국 고용지표 예상 하회와 외환당국 개입 추정 물량 출회로 -30.20원 내린 1,525.60원에 서울 환시 마감(야간 1,530.00원).
- 美 6월 비농업고용 부진에 달러 강세 완화되며 달러-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최근 동조화가 강해진 엔화의 상승 또한 환율 하락에 기여. 달러 하락 및 일본 외환당국의 실개입(추정)으로 엔화 초약세 기대 약화됨.
- 달러-원은 주로 1,540원대에서 거래되다 장 막판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추정 물량 출회되며 급락.
- 강달러 기대 완화는 원화 가치 회복에 긍정적 요인. 금주 6/19일부터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총 -36.7조원) 지속 여부와 금일부터 시행되는 달러-원 24시간 거래 영향에 주목할 필요.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7/3일)한 가운데 약보합권 마감.
- 달러인덱스는 예상보다 부진했던 美 고용지표(비농업 고용 +5.7만명) 소화하며 주간 -0.5% 하락. 매파적이었던 美 6월 FOMC 이후 높아진 연준 인상 기대 완화됨(7/5일 CME Fedwatch 기준 7월 인상 기대 22%, 전주 30%)
- 지난주 초 마이란의 상호 공격 중단 합의 발표로 중동 리스크 또한 축소됨. 사우디 국영매체에 따르면 추가 협상은 7/11일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
- 달러 강세 다소 완화되었으나 종전 이후 美 경기 우위 기대 유효해 달러 하단 지지될 전망. 금주 FOMC 소통 축소 이후 처음 발표되는 의사록(7/8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